

KIA 日 전훈캠프를 가다

미야자키=김여울 기자



최용규



이용규

이름 같고 나이도 같은 '용규'가 뜬다

KIA타이거즈 23살 동갑내기 이용규(좌투좌타·외야수)와 최용규(우투우타·내야수)가 내·외야 정복을 위한 도전에 나선다.

일본 미야자키에서 전지훈련중인 두 명의 '용규'는 1985년생으로 나이도 같고, 속소에서 한 이불을 덮는 룸메이트다.

같은 이름의 선수가 함께 하다보니 방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잘 못 받을 때도 있고, 경기장에서 '용규야'라는 소리에 같이 대답을 하기도 한다.

선배들도 억지로 두 선수가 함께 있으면 이름을 부르며 장난을 걸기도 한다. 둘이 사용하는 호칭은 '최'와 '용규'다.

얼굴만 알고 지내던 사이였지만 호흡이 척척 맞는 환상의 룸메이트가 된 두 선수는 성실하고 깔끔한 성격에 야구에 대한 욕심과 고집도 많았다.

자타가 공인하는 야구 욕심쟁이 이용규는 악바리 근성으로 2005년도에 KIA 유니폼으로 갈아입자마자 주전 자리를 꿰차며 스타급 선수로 부상했다. 대졸 신인 최용규도 이용규 못지 않다.

비슷한 색깔의 두 선수지만 곁에 보이는 모습은 전혀 판판이다. '말의 달인' 이용규는 말쑥도 뛰어나고 다양한 표정으로 훈련장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

루키 최용규, 이용규와 룸메이트 호흡도 척척...올 1·2번 타자 목표



최용규(왼쪽)·이용규가 2008시즌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을 한다. 휴식 날에는 속소에 앉아있는 법이 없다. 여기저기 관광도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푼다. '포커 페이스' 최용규는 친구들과 수다도 곧잘 떨

치만 경기장 안에서는 한결같이 무표정이다. 슬라이딩을 하다 무릎이 심하게 벗겨져도 표정에 변화가 없다. 휴식 날에는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를 하면서 보낸다.

올 시즌을 맞는 두 선수의 입장이 다르다. 지난 시즌 부상으로 힘든 한해를 보냈던 이용규는 슬럼프에서 벗어나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본인 스스로 "방망이만 들었지 몇 달동안 야구를 한 게 아니었다"고 말할 정도로 좋지 않았지만 청백전에서 다이빙 캐치와 도루를 시도하는 등 특유의 공격적인 야구를 구사할 만큼 컨디션이 좋다.

최용규는 프로 데뷔 첫 해가 순탄하지는 않다. 빠른 발과 야구 센스를 가진 선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 미완의 대가다.

계다가 2루에는 김종국, 3루에는 이현곤이라는 경쟁한 선배가 버티고 있다.

둘의 목표는 함께 테이볼세터(중심타선이 타점을 올릴 수 있도록 찬스를 만들어 주는 타선 1·2번)로 나서 좌·우 타석에 서서 내·외야를 누비는 것이다. 이용규·최용규라는 이름이 나란히 전광판에 올라오는 꿈을 꾸면서 두 룸메이트는 2008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승엽 부상 완치"

日 마이니치신문 보도

'라이온 킹' 이승엽(32·요미우리 자이언츠)이 왼손 엄지손가락 부상을 완전히 털어냈다고 일본 종합일간지 마이니치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지난 19일 이승엽이 도쿄 시내 병원에서 최종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승엽은 작년 7월 왼손 엄지손가락 통증을 호소해 시즌이 끝난 뒤 엄지 아래쪽 '내측측부 인대' 재건 수술을 받았다. 그는 최근 구단 전지훈련 도중 "현 상태는 100%"라고 밝혔다.

이승엽은 다음 달 7~14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베이징올림픽 대륙별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20일 대표팀 소집에 응할 예정이다.

내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

韓·美·日 등 16개국 참가

내년 열릴 야구 국가대항전인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할 16개 나라가 확정됐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20일(한국 시간) 2006년 초대 대회에 이어 WBC가 내년 3월께 3년 만에 개최되고 16개국이 출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전국은 지난 대회와 똑같다.

WBC 조직위원회는 지난 대회 때 2라운드에 오른 8개 나라에 자동 출전권을 줬다. 챔피언 일본과 준우승국 쿠바, 4강에 올랐던 한국과 도미니카공화국, 그리고 미국, 푸에르토리코, 베네수엘라, 멕시코 등이다.

이어 이날 호주, 캐나다, 중국, 대만, 이탈리아, 네덜란드, 파나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초대 대회는 4개국씩 4개조로 나눈 예선 리그에서 각 조 1·2위가 2라운드에 오르고 다시 4개국씩 편성된 리그에서 1·2위를 가린 뒤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원 질주...0.01초라도 더 빨리

20일 강원도 정선 하이원 스키장에서 열린 제89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알파인 스키 회전 결승에서 유세훈(대관령고)이 슬로프를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화순초 크로스컨트리 6km 제주 '은'

전남 금 3개...7위 향해 순항

동계체전 이틀째

윤민지·이원지·이유진·이주영(화순초)이 제89회 동계체전 이틀째 값진 은메달을 따내며 전남의 선전에 힘을 실었다. 광주는 첫날에 이어 역시 메달 소식을 전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윤민지·이원지·이유진·이주영(화순초)은 강원도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린 스키 크로스컨트리 여자초부 6km 계주에서 19분32초 6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여자 일반부 15km계주에서도 조인희(장흥군청)·윤혜운(당양군청)·문지희(진도군청) 역시 1시간 09분29초 5로 은메달을 머물렀다.

김정훈·문병관·신동훈·임성민(전남스키협회)은 남자 대학부 40km계주에서 3시간 14분 50초 1로 동메달을 따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외에 강민정(전남스키협회)은 스노보드 여자일반부 알파인대회전에서 9위를 기록했고, 스키 크로스컨트리 남초부 8km계주에서는 강해준·고재민·이원태·이원호·최우혁·최재영(화순초)이 5위로 골인, 소중한 점수를 추가했다.

전남은 여자일반부 전종목 석권을 이룬 조인희의 선전 등에 힘입어 대회 이틀째 현재 금3, 은4, 동 1개를 획득해 종합순위 7위를 향한 순조로운 향해를 하고 있다.

3관왕에 오른 조인희는 21일 크로스컨트리 프리10km에서 4관왕에 도전한다.

광주는 강원도 스노파크 경기장에서 열린 스키 크로스컨트리 여중 15km계주에서 유하나·이소연·정유진(이상 첨단중 1)이 2시간 59분으로 4위를 기록했으며 여자일반부 15km계주에서도 강민정·박유경·이슬기·정혜민(이상 광주스키협회)이 1시간 53분38초로 5위를 기록했다.

또 김요섭(전남대1)·김일욱(전남대 2)·오평화(전남대 2)·이재중(전남대2)·정민철(전남대 1)은 남대부 40km계주에서 3시간 49분48초06을 기록하며 6위에 올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전남고 한성주 '금'

장애인 동계체전 빙상 500m

한성주(전남고3·지적장애·시진)가 제5회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성주는 20일 강원도 춘천 의암빙상장에서 열린 학생부 빙상 500m에서 광주에 첫 금을 안겼다.

지난해 동계체전에서 동메달에 머물렀던 한성주는 이날 금메달을 목에 걸고 기세를 올리고 있어 21일 빙상 1,000m에서 두번째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또 21일에는 일반부 이진기(금호타이어)가 빙상 1,000m에서 금메달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장애인 체전에 광주시는 3개종목(크로스컨트리, 빙상, 휠체어컬링)에 22명(선수 9명, 임원 및 보조자 13명)이 출전, 종합 7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국·일본 오늘 맞대결

동아시아여자축구선수권

급격한 세대교체도 가능성을 확인한 한국 여자축구가 한 수 위 일본과 맞붙는다.

안익수 감독이 이끄는 여자대표팀은 21일 오후 6시(이하 한국시간) 중국 충칭 영천 스포츠센터에서 일본과 2008 동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 풀리그 2차전을 치른다.

1차전 결과 중국, 일본이 1승에 골목실, 다득점까지 갈아 공동 1위이고 한국과 북한이 나란히 3위. 2005년 이 대회 우승팀인 한국이 2연패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반드시 잡아야 하지만 쉽지 않다.

한국은 18일 중국과 첫 판에서 2-3 재역전패를 당했는데, 두번째 상대인 일본은 중국보다 더 까다롭다. FIFA 랭킹 11위로 중국(13위)보다 두 계단이나 높다. 25위에 처져 있는 한국으로선 버거운 상대다.

역대 전적에서도 1승7무11패로 한국의 일방적인 열세이다.

박지성 '꿈의 무대' 다시 선다

챔스 리그 5시즌 연속 출전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다섯 시즌 연속 '꿈의 무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할 기회를 잡았다.

맨유 구단 홈페이지는 20일 박지성이 포함된 맨유 선수단 21명이 올랭피크 리옹(프랑스)과 2007-2008 UEFA 챔피언스리그 원정경기를 치르기 위해 프랑스로 떠났다고 전했다. 맨유는 21일 오전 4시45분 프랑스 리옹의 제롤랑 스타디움에서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을 치른다.

박지성은 이로써 지난 해 3월8일 2006-2007 챔피언스리그 16강(프랑스)과 홈 경기에 후반 36분 교체 멤버로 투입된 이후 11개월여 만에 꿈에 무대에 다시 서게 됐다.

골프·윈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특별리 회원권
골프장: 3,500, 승차권: 1,700
남관주: 4,400, 골드: 1,900
클럽900: 6,400, 도포양: 2,100
상담문의: (062)351-0095